

고창군, 초·중·대학 신입생 지원금 접수

고창군은 대학진학축하금과 초·중·고 학생 책가방 구입비를 다음달 21일과 11일까지 접수, 학부모들의 부담을 낮추고 있다.

이날 '자식농사 잘 짓는 사람키우기' 사업으로써 대학진학축하금은 최대 100만원, 책가방 구입비는 1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책가방 구입비 지원대상은 현재(1월1일)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고창지역 초·중·고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해당된다. 신청서를 접수 받은 후 군은 관내 초·중·고로 입학 여부를 확인한 후 오는 3월에 신청계좌로 개별 지급할 계획이다.

대학진학축하금 대상자는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군으로 돼 있는 올해 대학 입학생이다. 고창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내에 대학(2년제 포함)에 진학한 자, 또는 고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3년 이내에 대학(2년제 포함)에 진학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축하금은 고창군 전입기간에 비례해 100만원, 70만원, 5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유기상 군수는 "앞으로도 자식농사 잘 짓는 사람 키우기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철 기자

고창군, 첨단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

고창군은 18일 기후변화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 첨단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11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개폐기, 온습도조절기, 무인방제기 등 원예시설 현대화와 다점보온커튼, 온풍난방기, 양액배제시설 등을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특히,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농촌에 ICT(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을 확산시켜 노동력 감소와 병충해에 따른 생산성을 높여 농가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기상 군수는 "앞으로 기후변화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첨단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의 고소득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철 기자



고창군, 등록면허세 정기본 부과

고창군은 18일 '2022년 1월 정기본 등록면허세(면허)'를 고지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올해 1월 면허세는 총 1만2,770건으로 2억 222만원이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모든 금융기관 및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은행 자동입출금,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을 활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진상 세정팀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세는 지역사회 발전에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 만큼 납기 내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신고, 허가, 인가 등)를 받는 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서 정기본은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하는 개인과 법인에 연 1회 부과된다. 다만, 과세기준일(매년 1월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부과 제외된다. /안병철 기자

고창군,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홍보

고창군은 18일 설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지방세 대납과 자동이체 신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대납(자동이체)신청은 홀로계산 고령의 부모가 직접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추진하고 있다.

대납(자동이체)대상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으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납부기한에 맞춰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이나 납기경과로 가산금 부담 등이 없는 편리한 제도로써 지방세 고지서 1장당 300원이 공제되고, 고지서의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하면 6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안병철 기자

완주군, 사회적경제 공모사업 한자리에

돌봄-환경 분야 등 사회적문제 해결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 기대

박상래 기자

완주군은 18일 주민들이 사회적경제와 사업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공모사업 통합설명회'를 가졌다.

완주소셜굿즈센터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비대면으로 추진된 설명회는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공모사업은 △소셜굿즈팀 : 소셜굿즈 육성사업, 지역창업공동체 육성사업, 공유단체·기업 육성지원사업 △도시공동체팀 : 아파트 르네상스 공모사업 △마을공동체팀 : 생생마을 기초단계, 파워빌리지 사업, 마을특성화사업, 마을로 청년 인큐베이팅, 농촌관광 할인 패키지 △청년정책팀 : 청년창업공동체 육성사업으로

로 2월부터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홈페이지(www.wanju.go.kr)를 참고하면 된다.

군은 '소셜굿즈 2025플랜'을 토대로 현재 320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교육, 복지, 문화, 관광, 에너지 등 군민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사회적경제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3개 부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박성일 군수는 "〈예비〉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 사회적경제 주류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협동경제도시 완주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공동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또한 올해 1월말 준공



을 앞둔 사회적경제 거점공간 "완주소셜굿즈 혁신파크"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간 협

업, 사회적 가치 창출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진안군, 무료로 가축분뇨 부속도검사

진안군이 올해도 퇴비 부속도 의무 검사를 무료로 진행한다.

퇴비 부속도 의무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미부속 퇴비 사용에 따른 토양오염을 막을 수 있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적절한 퇴비 사용은 악취를 저감하는 효과도 있다.

현재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연2회, 신고대상(축사면적 1,500㎡미만) 농가는 연1회 퇴비 부속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부속 적정 판정은 축사면적 1,500㎡이상은 부속 후기 및 완료 시, 축사면적 1,500㎡미만은 부속 중기 이후며 적정기준 이하의 퇴비를 살포시 과태료 징수 대상이 된다.

부속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상담소에 비치된 시료봉투에 퇴비 500g정도를 밀봉해 농업기술센터 1층 종합분석실에 제출하면 된다.

가축분뇨 퇴비를 잘 부속시키기 위해서는 퇴비화할 때 적정 수분함량(75%)을 준수하고, 퇴비 더미 내 공기(퇴비더미 1㎡ 당, 1분 150리터)를 알맞게 공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퇴비 더미의 뒤집기를 해주어야 공기공급이 원활해 질 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돼지분뇨는 수분함량이 높기 때문에 퇴비화 전 수분의 분리과정이 중요하다. 수분 분리가 잘되지 않을 경우 퇴비화 초기 수분함량(75%)을 맞 추가 위한 수분 조절제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소화율이 낮은 닭똥(계분)은 분뇨 내 영양물질 농도가 매우 높아 축사에 쌓일 경우 쉽게 부패하므로 배출 즉시 퇴비화 처리를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올바른 가축분뇨 퇴비화 요령을 숙지하고, 적절한 퇴비 부속도 검사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병채 기자

진안군,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 응모

진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공모사업'에 참여했다.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은 내·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체계적 관리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현장평가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선정위원회 5명을 포함해 전라북도청 관계자 3명 등이 참석해 현장 부지 등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군은 진안군 진안읍 군산리 241번지(607㎡)에 총사업비 15억원을 들여 지상2층, 연면적 587.12㎡ 규모로 2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모사업 선정여부는 지난해 서류평가에 이어 이번 현장심사평가 점수를 합산해 오는 25



일 발표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사업이 선정될 경우 관내 농업인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손 부족으로 어려운 관내 농업인들을 위해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병채 기자

완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학업복귀·사회진입 도움

완주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검정고시 합격 등 학업에 복귀하거나 운전면허 취득 등 사회에 진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난해 학업복귀자 21명을 분석한 결과 검정고시 합격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급학교 진학과 대안학교 진학이 각각 3명과 2명이었다. 나머지 1명은 정규학교 복귀로 나타났다. 사회진입 성과(21명)로는 운전면허증 취득 등 자격증 취득이 14명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했으며, 취업 4명, 직업역량 강화 3명 등으로 집계됐다. 학교 밖 청소년 3명 중 2명가량이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학업에 복귀하거나 운전면허를 취득해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셈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각종 서비스 이용은 지난해 총 8,212건 중에서 상담 지원이



59.0%(4,842건)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자립 지원이 20.5%(1,687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직업체련과 취업 지원 10.7%, 교육 지원 8.9%, 자기 계발 0.8% 등의 순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는 이와 관련, 올해 상반기 안에 자립모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기 청소년 발굴 등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자립모델 구축 원탁토론회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사업 추진계획'을 상정하고 가결 처리했다.

김성명 위원장은 "지역의 청소년은 그 지역의 미래라는 점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보호와 지원에 막중한 책무를 느낀다"며 "오늘 제시해주신 전문가 고견을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래 기자

지역포커스

임실군, 설 앞두고 지역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1인당 구매액 30만원 → 50만원(지류+모바일), 다음달까지 한시적 운영

임실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 역할을 하고 있는 임실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상향, 운영한다.

군은 설 명절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월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설 명절기간 동안 구매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내달 28일까지 1인당 상품권 구매 한도액을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여 상품권 종류에 관계없이 구입 가능하며 10% 할인으로 동일 적용 운영한다.

군은 국비가 8%에서 4%로 하향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비 6%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존 할인을 10%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임실사랑상품권은 지난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25억을 발행하여 지역순환 경제를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

카드와 모바일 등 전자상품권 도입에 따라 가맹점도 지속 확대되어 2000여개로 늘어나 임실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군은 지난해 지역순환경제 구축과 소비자의 편리 도모를 위해 도입한 카드형 임실사랑상품권 발매 판매점을 확대 시행했다.

올해도 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에 따라 상품권 확대를 통하여 대규모 장보기 행사 등에 대체하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실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높인 만큼 많은분들이 할인된 가격의 상품권 이용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길 바란다"며 "덕분에 지역 상권도 살아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부안군,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홍보

부안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특조법)이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실소유자가 해당 법을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조법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건물이다.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을 원하는 신청인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번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과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증 진위와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에 대한 조사와 2개월 공고기간 중 상속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신탁가액 30%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특조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확인서 발급 신청을 서둘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병하 기자

문태규 “군산시, 해양바이오산업 집중 육성해야”

문태규 군산시장 출마예정자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는 '해양바이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지역 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출마예정자는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해양바이오산업"이라며, "바다생물에는 육상생물에 없는 항암, DNA합성 등의 기능을 가진 특수유전자가 다량 존재하고 있지만 바다생물의 1%만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출마예정자는 또 사정이 이러한데도 "군산시의 해양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해양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R&D연구소,



기업체 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차세대 먹거리를 통한 시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산시장에 당선되면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센터를 설립하여 해양바이오 소재, 해양헬스케어, 해양치유센터, 해양생태계 복원, 해양관광과 결합된 기업을 유치하고 산·학·관 협력을 통한 해양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군산시의 차세대 미래 먹거리를 반드시 창출해 내겠다"고 자신의 공약을 제시했다. /백용규 기자